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9, No.10 (December 2009) pp.51-67

조선시대 답호[塔胡] 연구

- 17세기 전기까지 -

송 미 경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 Study of *Dap-ho*(塔胡) in Joseon Dynasty

- Until the Early 17th Century -

Mi-Kyung So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09. 9. 8, 심사(수정)일: 2009. 11. 5, 게재확정일: 2009. 11. 13)

ABSTRACT

The study is about 'Dap-ho', a kind of men's coat in the early, and mid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study examined the kinds, color, and fabric of Dap-ho from『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t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 and the change of shape through excavated costume, and the period is limited until early 17th century. In『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re is record of Dap-ho from King Sejong period to Gwang-hae-gun period. After 160 years, it appears again in King Young-jo period, and remains until King Soon-jong period. It was mentioned 168 times, from over 100 cases. There are 26 colors of Dap-ho from『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among them, green appears the most. Thin fabric, like Joo [紬], Sa[紗], and Cho[綃] was used often, and there are records of double layered, and cotton padded Dap-ho. The period when Dap-ho appears as excavated costume is almost the same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and disappears after the decease of Dae-ho Kang(1541-1624), and Sun-un Yun(1580~1628). After in this period, Dan-ryung, and Jik-ryung changes into double layered clothes, and Jik-ryung functioned as the underclothes of Dan-ryung, instead of Dap-ho. The excavated costumes of Hwak Kim(1572~1633), and Eung-hae Lee(1547~1626) proofs this. But Dap-ho was called 'Jun-bok', 'Dugree', Que-ja', and 'Dap-ho' until the later period of Joseon Dynasty.

Key words: Dap-ho(답호),『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조선왕조실록), men's clothes of the Joseon Dynasty(조선시대 남자복식), excavated costume(출토복식), jik-ryung(직령), dan-ryung(단령)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Mi-Kyung Song, e-mail: mksong@swu.ac.kr

Ⅰ. 서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기에 많이 착용되었던 남자 포류의 일종인 답호를 연구한 것이다. 답호의 형태는 곧은 깃에 반수의(半袖衣)이며, 무가 달린 옷으로, 깃 모양을 제외하면 단령(團領)과 같고, 소매가 짧은 것을 제외하면 직령(直領)과 같다. 답호는 고려 중기 원(元) 간섭기 이후부터 17세기 초기까지 착용되었던 남자 일상복이며 단령의 받침옷[1]으로 조선시대 전기의 출토복식에서도 철릭과 답호, 단령의 순서로 수습되기도 한다.

그 동안 답호에 관한 연구는 출토복식 보고서에서 개별로 다루었으며, 논문은 홍나영의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2], 학위논문은 이봉숙의 답호에 관한 연구[3], 이주영의 '무수의(無袖衣)에 관한 연구'[4], 권오선의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5], 변지연의 '더그레에 관한 연구'[6] 등이 있다. 답호는 조선시대 남자복식으로 시대에 따라 형태와 명칭이 변화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주제 또는 일부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답호의 기록은 어느 시기까지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답호에 사용된 직물과 색상을 살펴본다. 셋째, 출토된 조선시대 답호를 정리하여 시대별 형태의 변화를 흐름을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출토유물을 통해 답호의 형태가 변화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답호가 사라진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의 시기는 유물에서 반수의(半袖衣) 포(袍)의 형태인 답호가 수습되는 17세기 초까지로 한정한다. 광해군 이후부터 영조 대까지 답호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될 때까지는 약 160여년의 시간이 있다. 영조, 정조, 고종, 순종실록에 답호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답호의 형태가 변하였고 복식명칭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7] 이는 『조선왕조실록』의 광해군(光海君)대까지는 철릭과 답호가 짝을 이루었다고 하면, 조선후기 영조(英祖)대 이후에는 협수 또는 동다리와 전복(戰服) 또는 답호로 바뀌었다. 즉 답호의 명칭은 그대로이지만, 소매가 없어지고 깃 모양이 마주보는 대금(對襟)형으로, 무의 형태 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모든 유물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수록된 실측도와 치수를 기본으로 한 점이다.

Ⅱ. 문헌을 통해 본 답호

조선시대 이전의 답호의 기록과 형태는 고려시대의 문헌인 『노걸대 老乞大』(1346년 추정)와 고려시대의 불복장품(佛腹藏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서정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시대의 문헌에 나타난 답호는 『노걸대』에 "搭胡, 搭護, 搭忽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더그레'로 언해되어 있다. 『역어유해』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 남송(南宋) 정사초(鄭思肖)의 시(詩)에 '搭護는 원(元)의 복식명'이라 기록되어 있어, 답호가 원대의 옷임을 알 수 있다."[8] 또한 『노걸대』에서는 봄에는 '紫羅繡搭胡' 여름에는 '上頭繡荊褐紗搭胡' 겨울에는 '鴉青六花搭胡'의 기록이 있다.[9] 이를 통해 답호는 원나라의 옷이며 고려시대에 들어온 옷임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답호 유물은 발원문에 의하면 1346년에 조성되었다는 문수사(文殊寺) 극락보전의 금동아미타불좌상(金銅阿彌陀佛坐像)에서 나온 불복장품인 사저교직답호(絲紵交織塔胡)[10]가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해인사(海印寺) 대적광전(大寂光殿)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木造毘盧遮那佛坐像)의 불복장품인 삼베 답호[11]가 있다.

이 장에서는 답호가 기록된 대표적인 조선시대 문헌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 답호의 착용실태와 색상, 직물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기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종~광해군대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표 1〉로 정리하였다.

조선시대 예서(禮書)와 문집에도 답호가 기록되어 있으나, 용도는 주로 상례(喪禮)용이며, 답호의 명칭만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답호의 용도, 색상, 직물, 구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시대의 흐름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생각한다.

〈표 1〉『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답호

출처	권	년(서기) 월 일	답호	용도 및 비고
세종 실록	134	국조오례의	褡複一	왕의 습
	103	26년(1444) 3월 26일	青暗花褡複一	명에서 왕에게 하사
			青暗花褡複一	
			青素褡複一	
단종 실록	2	즉위년(1452) 8월26일	草綠綿紬塔胡1領	명사신에게 하사
		즉위년(1452) 8월27일	塔胡	
	3	즉위년(1452) 윤9월19일	灰色綿布塔胡二領	김유에게 하사
	4	즉위년(1452) 10월4일	柳青紬塔胡二領	
		즉위년(1452) 10월5일	草綠段子塔胡一	세조와 부사 이사철에게 하사
			柳青段子塔胡一	
			茶褐紬塔胡一	
			草綠紬塔胡一	
		즉위년(1542) 10월13일	草綠紬塔胡一	김유에게 하사
			草綠紬塔胡一	
		즉위년(1542) 12월2일	柳青紬塔胡一	
	11	2년(1454) 5월6일	綠羅塔胡一	守陵官 윤사로에게 하사
		2년(1454) 5월 18일	桃紅匹段塔胡一	
			桃紅匹段塔胡一	侍陵宦官 이귀에게 하사
	14	3년(1455) 4월22일	草綠紬袂塔胡一	명사신에게 하사
세조 실록	4	2년(1456) 7월18일	灰色綿布袂塔胡一	명사신에게 하사
		2년(1456) 7월28일	草綠段子塔胡一	이사철 병문안 하사
	15	5년(1459) 3월15일	草綠紬袂塔胡二	명사신에게 하사
	16	5년(1459) 4월9일	藍紗塔胡一	함길도 관찰사, 도절제사에게 하사
		5년(1459) 4월16일	藍羅塔胡一	조문식,권지(신하)에게 하사
			藍羅塔胡一	
	19	6년(1460) 3월2일	草綠綿紬袂塔胡一	명사신에게 하사
		6년(1460) 3월9일	大紅紬袂塔胡一	
	20	6년(1460) 4월20일	桃紅段子塔胡一	왕세자빈의 친정부모에게
	33	10년(1464) 5월18일	草綠綿紬袂塔胡一	명사신에게 하사
	43	13년(1467) 9월14일	草綠綿紬袂塔胡一	
			柳青綿紬襦塔胡一	
	43	13년(1467) 9월27일	綿紬襦塔胡一	
	44	13년(1467) 10월2일	草綠綿紬襦塔胡一	
		13년(1467) 10월22일	綿紬襦塔胡一	귀성군 이준에게 하사
			綿紬袂塔胡一	
	46	14년(1468) 4월9일	草綠綿紬袂塔胡一	사신에게 하사
성종 실록	1	즉위년(1469) 12월2일	灰色紬襦搭胡一	청송습사 권감에게 하사
		즉위년(1469) 12월7일	紫紬襦搭胡一	
	4	1년(1470) 3월1일	塔胡一	통사에게 하사
	4	1년(1470) 3월11일	草綠羅搭胡一	사은사 김국광에게 하사
	5	1년(1470) 5월1일	草綠紬袂塔胡一	중국사신에게 하사
	6	1년(1470) 7월24일	灰色襦搭胡一	성절사 한치의에게 하사
	7	1년(1470) 8월22일	鴉青紵絲襦褡胡一	광릉 수릉관, 시릉내시에게 하사
	17	3년(1472) 4월24일	搭胡一	윤필상에게 하사
	44	5년(1474) 윤6월2일	紬襦塔胡一	성절사 한치인에게 하사
	46	5년(1474) 8월19일	匹段袂搭胡一	주문사에게 하사
			紬襦搭胡一	
			紬襦搭胡一	

출처	권	년(서기) 월 일	답호	용도 및 비고
성종 실록	50	5년(1474) 12월11일	藍色搭胡一	통사에게 하사
			藍色搭胡一	
		5년(1474) 12월19일	匹段袂搭胡一	사은사 한명회에게 하사
			紬襦搭胡一	부사 이극균에게 하사
	70	7년(1476) 8월4일	紬襦搭胡一	주문사 청송부원군 심회 하사
			紬襦搭胡一	부사 참판 이극돈에게 하사
	74	7년(1476) 12월23일	匹段袂搭胡一	사은사에게 윤자운에게 하사
			紬襦搭胡一	
			匹段襦搭胡一	부사 한치례에게 하사
	83	8년(1477) 8월20일	紫紬袂塔胡一	도승지 현석규에게 하사
	110	10년(1479) 윤10월2일	草綠紬搭胡一	도사선위사 한언에게 하사
		10년(1479) 윤10월2일	有色紬襦搭胡一	중국사신에게 하사할 품목
		10년(1479) 윤10월12일	青柳青紬襦搭胡一	중국사신에게 하사
	112	10년(1479) 12월30일	綿紬襦搭胡一	평안도절도사 김교에게 하사
	115	11년(1480) 3월20일	紅段搭胡一	김계창에게 하사
	117	11년(1480) 5월1일	草綠紬袂搭胡一	중국사신에게 하사
	120	11년(1480) 8월19일	茶褐綿紬袂搭胡一	성절사의 별진헌 물목
			草綠苧布搭胡一	
	129	12년(1481) 5월16일	草綠紬袂搭胡一	중국사신(2인)에게 하사
			草綠紬袂搭胡一	
	152	14년(1483) 3월12일	柳青紬襦搭胡一	야인에게 하사
	156	14년(1483) 7월2일	草綠紬袂搭胡一	중국사신(2인)에게 하사
			草綠紬袂搭胡一	
	159	14년(1483) 10월19일	匹段袂搭胡一	야인(3인)에게 하사
			匹段袂搭胡一	
			匹段袂搭胡一	
	173	15년(1484) 12월8일	匹段搭胡一	성절사 한치형에게 하사
	186	16년(1485) 12월28일	無紋段子袂搭胡一	추장(2인)에게 하사
			無紋段子袂搭胡一	
	187	17년(1486) 1월9일	匹段袂搭胡一	부추장에게 하사
		17년(1486) 1월16일	匹段袂搭胡一	좌위추장에게 하사
		17년(1486) 1월22일	匹段袂搭胡一	우위추장에게 하사
	199	18년(1487) 1월16일	草綠段子搭胡一	순찰사에게 하사
	210	18년(1487) 12월14일	大紅搭胡一	상품으로 한창려에게 하사
	230	20년(1489) 7월7일	青紗搭胡一	청성군 한치형에게 어의 하사
	253	22년(1491) 5월12일	藍紗搭胡一	김우신에게 하사
	277	24년(1493) 5월15일	藍紗搭胡一	중궁이 윤호의 헌수연 때 하사
			黃紗搭胡一	
			藍紬搭胡一	중궁이 윤파에게 하사
			黃紗搭胡一	
			藍紬搭胡一	중궁이 윤탕로에게 하사
연산군 일기	2	1년(1495) 1월6일	鼎紬襦搭胡一	고부사에게 하사
	21	3년(1497) 1월18일	襦塔胡一	육승지에게 각1벌씩 하사
		3년(1497) 2월22일	塔胡一	궁궐로 들이다.
		3년(1497) 3월11일	柳青色塔胡一	순변사 이계동에게 하사
	31	4년(1498) 10월26일	匹段塔胡一	야인 도독에게 하사
	34	5년(1499) 7월20일	草綠苧絲袂搭胡一	경변사 이극균에게 하사
			大紅紬袂搭胡一	
	46	8년(1502) 10월18일	藍色苧絲搭胡一	좌의정 성준에게 하사
	49	9년(1503) 5월20일	藍紗褡胡一	도승지 김감에게 하사

출처	권	년(서기) 월 일	답호	용도 및 비고
연산군 일기	57	11년(1505) 4월10일	大紅搭胡一	당상내관의 연향과 거둥 시
			草綠・藍・柳靑段子褡胡	당하내관의 연향과 거둥 시
	58	11년(1505) 6월25일	塔胡	답호의 길이에 대한 전교
중종 실록	36	14년(1519) 6월13일	紬單搭胡	복식금제
			染色搭胡	
	45	17년(1522) 8월12일	白苧布塔胡	복식금제
선조 실록	38	26년(1593) 5월2일	紵絲褡䙝一	오례의에 의거
			紅紵絲褡䙝一	
	38	26년(1593) 5월29일	褡䙝一	개장도감
	160	36년(1603) 3월18일	褡䙝감 雲紋草綠紗 1疋	의창군의 혼인
	200	39년(1606) 6월6일	褡護	일본파견 신하에게 하사
광해군일기	52	4년(1612) 4월21일	生紃褡䙝	조유도의 파직청원(사치금제 논의)
			靑紃褡䙝	사치금제
			生紃褡䙝	
	52	4년(1612) 4월24일	生紃褡護	사치금제

1. 답호의 용도와 기록된 횟수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영조, 정조, 고종, 순종대의 기록에 답호가 등장을 한다. 총 100건에 160여회에 언급되고 있다.

세종대에 처음 등장하는 답호는 『국조오례의』에 습(襲)에 사용되는 복식으로 원령(圓領), 답호(搭胡), 철릭과 함께 거론되며, 답호는 반비의(半臂衣)라는 부가설명이 있다[12]. 또한 세종 26년의 기록에는 명나라에서 왕에게 내린 복식 가운데 상복(常服)의 일습으로 답호가 있다.[13]

단종 대에는 외국에서 온 사신이 돌아갈 때 하사하는 하사품[14]에 답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하들에게도 임금이 내리는 옷으로 답호가 사용[15]되고 있다. 답호는 하사품을 받는 대상이 신분이 높으면 원령(圓領)과 답호, 철릭이 일습을 이루며, 신분이 낮으면 답호와 철릭이 일습을 이루고 있다.

세조대에는 명나라 사신[16]과 함길도 관찰사[17], 그리고 왕세자빈의 집에 내리는 하사품[18]으로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왕자에게 내리는 옷의 일부로도 답호는 사용[19]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대의 기록에 가장 많은 답호의 기록이 보인다. 대부분 중국 명나라와 관련된 사신이나 사은사나 성절사 등 중국과의 외교를 담당한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복식 일습 중 답호가 사용[20]되었고 야인(野人)들에게도 하사[21]하였다. 또한 성종 11년 8월 19일 기사에는 명나라에 성절(聖節) 하례품(賀禮品)으로 올리는 물목 가운데 '茶褐綿紬袂搭胡' '草綠苧布搭胡'가 각 1건씩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기사는 성종 11년(1480) 3월 20일 기사로 "紅段搭胡를 승정원에 내리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것은 내가 입었던 원령(圓領)이었는데, 지금 답호를 만들어 내리니, 경 등이 그것을 두고 내기하라하였다. 좌승지 김계창이 이를 차지하였는데, 그 답호에는 헤어지고 더러워진 곳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임금의 검소함이 이와 같았다"[22]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보면 원령 즉 단령을 답호로 고쳐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도 승지들로 하여금 율시(律詩)를 겨루는 자리에서 상품으로 답호를 하사하기도 하였다.[23] 또한 기우제를 관장하였던 청성군 한치형에게 靑紗搭胡와 백저포 철릭을 내리면서 "옷을 벗어 주니 경은 더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다.[24]

연산군대의 기록에는 단종~성종대의 명나라나 야인이나 변방국의 사신에게 하사한 기록이 대다수와 달리, 외교와 관계되는 기록은 야인 추장 접대에 관련하여 하사한 1건[25] 뿐이다. 그 외는 변방을 떠나는 관리들에게 하사한 기록[26]과 병에서 회복한 좌의정 성준(成俊)에게 남색 모시 답호 1벌을 하사하기도 했으며[27], 대군(大君)이 거처하는 도승지 김감(金勘)의 집에 남사(藍紗) 답호 등을 하사[28]하였다. 이 외

도 “무릇 연향(宴享) 및 모든 거둥에 당상내관(堂上內官)은 대홍답호(大紅搭胡)를 입고, 당하내관은 품질(品秩)에 관계없이 단령으로는 아청단자(鴉靑段子)를 쓰고 답호 철릭으로는 초록(草綠) 남(藍) 유청(柳靑) 단자를 쓰며,...”[29]라고 하여 연향 시 복식에 관한 하교를 내린 기록이 있다. 연산군대의 기록에는 옷의 형식에 대한 전교도 있는데, “조사(朝士)의 옷소매가 오히려 좁으니 넓어야 하겠으며, 철릭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고, 답호 단령은 마땅히 좀 길게 하여 답호의 주름이 단령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하리라”[30]하였다.

중종실록의 기록에는 2건이 있는데 “주단답호를 금단하고, 각사(各司)의 서리(書吏)나 생도(生徒)는 염색한 답호 착용을 금단하며...”[31]그 외에도 예조(禮曹)에서 사치금지에 관한 것과 “동서반(東西班) 정직(正職) 외에는 백저포(白苧布)로 답호 만드는 것 등을 금하고...”[32]하여 모두 신분에 따른 복식금제에 관한 것이다.

선조실록에는 4건의 기록이 있는데, 2건은 개장도감(改葬都監)에서 『오례의』의 칭(稱)에 관하여 언급할 때와 능침에 쓸 의대의 염색에 관한 건에서 답호가 언급되었다. 1건은 상의원(尙衣院)이 동궁인 의창군(義昌君)의 혼인 때 쓰이는 물품 조달에 관한 것으로, “동궁의 하절기 의대 중에 답호 감으로 운문초록사 1필을 요동에서 사오게 하여달라는 청원”[33]을 하는 기록이 있다. 그 외 일본에 파견하는 사신의 옷과 관련한 기록이 있다.[34]

광해군대의 기록에는 모두 3건의 답호가 언급되어 있으며[35] 모두 사치금제에 관한 것이다. 이때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보면, 당하관은 초(綃)로 만든 옷을 입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많이 입고 있어, 이를 금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받아들이게 된다.

2. 답호의 색상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답호〈표 1 참조〉의 색상은 모두 26색이다.〈표 2〉 이를 다시 색상별로 크게 분류하면 녹색계열, 청색계열, 황색계열, 홍색계열, 자색계열 그리고 회색과 백색이 있다. 제일 자주 등장하는 색은 초록으로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에 걸쳐 23회이다. 그 다음은 남색으로 세조, 성종, 연산군대로 12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은 유청(柳靑)과 청(靑)으로 7회와 5회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답호의 색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계열의 색명은 초록(草綠), 유청(柳靑), 녹(綠), 청류청(靑柳靑)이 있다. 청색계열은

〈표 2〉『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답호의 색상

색상 \ 왕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계
靑	靑	3			1				1	5
	藍			3	6	3				12
	鴉靑				1					1
綠	草綠		6	7	10	2		1		26
	綠色		1							1
	柳靑		3	1	1	2				7
	靑柳靑				1					1
白	白						1			1
灰	灰色		1	1	2					4
黃	黃				2					2
	茶褐		1		1					2
紅	桃紅		2	1						3
	大紅			1	1	2				4
	紅				1					1
紫	紫				2					2
계		3	14	14	29	9	1	1	1	72

청(靑), 남(藍), 아청(鴉靑)이 있다. 황색계열에는 황(黃), 다갈(茶褐)이 있다. 홍색계열에는 도홍(桃紅), 대홍(大紅), 홍(紅)이 있다. 자색계열에는 자(紫), 회색계열에는 회색(灰色)이 있으며, 그리고 백색이 있다.

3. 답호의 옷감과 구성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답호〈표 1 참조〉의 옷감〈표 3〉은 단종 조에는 綿布 1건, 綿紬 1건, 紬 7건, 羅 1건, 段子 2건, 匹段 2건의 기록이 있으며, 세조 조에는 綿布 1건, 綿紬 10건, 紬 1건, 紗 1건, 羅 2건, 段子 2건이다. 성종 조에는 紵布 1건, 紵絲 1건, 綿紬 1건, 紬 20건, 紗 5건, 羅 1건, 綃 1건, 匹段 11건, 段子 3건으로 다양한 종류의 옷감이 답호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연산군조의 답호에 사용된 옷감의 기록은 苧絲 2건, 紬 1건, 鼎紬 1건, 紗 1건, 匹段 1건, 段子 3건이 있다. 중종 조에는 苧布 1건, 紬 1건이 있다. 선조 조에는 紵絲 2건, 紗 1건의 답호 기록이 있다. 광해군 조에는 綃 1건과 生綃 2건의 답호 기록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답호에 사용된 옷감은 12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광해군대에 답호〈표 1 참조〉에 사용된 옷감의 74.47%가 綿, 紵, 紬, 紗, 羅와 같은 비교적 얇은 옷감이 기록되어 있고 匹段, 段子와 같은 段類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조선시대 답호의 색상과 직물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을 분류하여 변화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지만, 광해군시대 이후의 답호 형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영정조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왕의 빈전도감에 사용되었던 답호는 습과 소렴 대렴에 언급된 답호의 순

〈표 3〉『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답호의 옷감

직물 \ 왕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계
綿	綿布		1	1						2
紵	紵布				1		1			2
	紵絲				1	2		2		5
紬	綿紬		1	10	2					13
	紬		7	1	20	1	1			30
	鼎紬					1				1
紗	紗			1	5	1		1		8
羅	羅		1	2	1					4
綃	綃				1				2	3
	生綃								2	2
段	匹段		2		11	1				14
	段子		2	2	3	3				10
계		0	14	17	45	9	2	3	4	94

〈표 4〉 조선시대 답호의 시대별 형태 변화

이언충(1529~1582)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p. 372.	명 만력제(1563~1620) *定陵 下.* p.32	탐릉군(1636~1731)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 110.	정원용(1783~1873)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p. 141.

〈표 5〉『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답호의 구성

구성 \ 왕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광해군	계
겹(袂)		1	8	19	2				30
유(襦)			4	14	2				20
계	0	1	12	33	4	0	0	0	50

서로 보아 명나라 정릉(定陵)에서 출토된 명 만력제(萬曆帝 1563~1620)의 중단(中單)[36]과 탐릉군(耽陵君 1636~1731)의 답호[37]처럼 칼깃에 무수의(無袖衣)의 형태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고종시대의 답호는 중요민속자료 13호로 지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의대(衣帶) 가운데 답호[38]가 있다. 이를 〈표 4〉로 정리하였다.

또한『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답호〈표 1 참조〉의 구성〈표 5〉은 겹과 유(襦:솜)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구분하여 표기된 왕조는 단종, 세조, 세종, 연산군대이다.

Ⅲ. 조선전기 남자 복식과 답호의 형태

이 장에서는 답호가 출토된 묘의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전기 답호의 실제 형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답호의 형태는 이미 발표 된 각 보고서에 있는 치수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다룬 시기는 임진란이 끝나고 문헌과 출토복식유물에서 답호가 더 이상 수습되지 않은 17세기 중반까지 다루었다. 본 장에서 분석한 답호는 李季胤(1431~1489)[39], 宋效商(1430~1490추정)[40], 邊脩(1447~1524)[41], 金欽祖(1461~1528)[42], 高雲(1479~1530)[43], 鄭溫(1481~1538)[44], 丁應斗(1508~1572)[45][46], ,申汝灌(1530~1580)[47], 李彦忠(1529~1582)[48], 李碩明(1513~1583)[49], 沈秀崙(1534~1589)[50], 鄭休復(1529~1604)[51], 趙儆(1541~1609)[52], 姜大虎(1541~1624)[53], 尹善言(1580~1628)[54] 묘에서 출토된 15건의 답호 53점이다.

이를 시대별로 분류하면 15세기에는 이계륜, 송효상 묘에서 출토된 답호 3점, 16세기전기에는 변수, 고운, 정온 묘에서 수습된 답호 21점이고 16세기 후기에는 정응두, 이언충, 이석명, 심수륜 묘에서 출토된 답호 18점, 17세기에는 정휴복, 조경, 강대호 묘에서 출토된 답호 11점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17세기 초기까지의 '답호'는 반수의(半袖衣)로 포류(袍類)의 일종으로,『조선왕조실록』에는 철릭 위에 입으며, 관복(官服)으로 답호 위에 단령을 입는다. 전체적인 형태는 깃의 모양만 제외하고 단령과 동일하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전기 남자 묘에서 출토된 답호의 형태에 따라, 깃, 소매, 무, 고름 등과 같은 답호 형태의 특징과 직물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 가운데 宋效商(1430~1490추정) 묘 출토 답호와 尹善言(1580~ 1628) 묘 출토 답호는 묘주의 생몰년 연대와 복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일치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1. 15세기 답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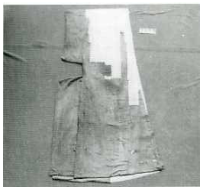
이계윤(1431~1489)의 답호 1점과 송효상(1430~1490추정)묘 출토 답호 2점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15세기 추정 답호 1점이 있다. 이계윤의 답호는 반파되어 깃모양은 알 수 없다. 앞뒤 길이 차이가 3cm 있는 전단후장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 소매이다. 조선전기 무의 특징인 '다중 접음무'이다.

2. 16세기 전기 답호

16세기 전기에 해당되는 답호는 변수(1447~1524), 김흠조(1461~1528), 고운(1479~1530), 정온(1481~1538) 묘에서 수습된 21점으로 답호의 수습 빈도가 조선전기에서 제일 많은 편이다.

이 시기 답호의 특징은 깃은 '이중목판깃'이나 '이중칼깃'으로 동 시대의 포류의 깃과 동일한 형태이다. 또한 '겨드랑이 아래 옆선길이'가 10~25cm로 긴 길이가 특징이다. 그와 더불어 답호의 앞 뒤 길이차이

〈표 6〉 조선시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답호의 형태

				
이계륜 (1431~1489) *韓國服飾, 11,* p. 82.	송효상 (1430~1490 추정)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p. 12.	변수 (1447~1524)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p. 46	김흠조 (1461~1528)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p. 365.	고운 (1479~1530)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p. 357.
정온 (1481~1538) *韓國服飾, 16,* p. 68.	정응두(1508~1572)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 107.	신여관 (1530~1580) *韓國服飾, 17,* p. 74.	이언충(1529~1582)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②.* p.	이석명(1513~1583)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86.
심수륜(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4.	정휴복 (1529~1604) *韓國服飾, 7,* p. 142.	조경(1541~1609)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p. 108.	강대호 (1541~1624) *韓國服飾, 23,* p. 60.	윤선언(1580~1628)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p. 44.

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소매는 직선형 소매,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 소매가 섞여있다. 무의 형태도 무의 위가 접혀서 안으로 들어간 '다중 접음무'이다.

3. 16세기 후기 답호

16세기 후기에 해당하는 답호는 정응두(1508~1572), 신여관(1530~1580), 이언충(1529~1582), 이석명(1513~1583), 심수륜(1534~1589) 묘에서 수습된 16점이다. 16세기 중기의 출토복식이 보고된 바가 없어, 16세기의 복식은 답호 뿐 만 아니라 포류에 있어서도 변화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답호의 깃은 '이중칼깃'과 '칼깃'이 혼재되어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 옆선길이'도 16세기 전기 답호에 비해 짧아졌다. 답호의 앞뒤 길의 길이차이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있다. 소매의 형태는 직선형소매와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넓어지는 깔대기형소매가 섞여있다. 무의 형태는 16세기 전기의 형태인 위가 접혀서 안으로 들어간 '다중 접음무'와 무위가 직선인 형이 섞여있다.

4. 17세기 전기 답호

17세기 전기에 해당하는 답호는 정휴복(1529~1604), 조경(1541~1609), 강대호(1541~1624), 윤선언(1580~

1628)의 묘에서 수습된 11점이다. 이 가운데 윤선언 묘 출토복식은 매우 다양한 시대를 보여주어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답호는 16세기와는 구별되는 형태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답호의 깃은 이중칼깃, 칼깃, 목판깃의 형태로 다양하다. '겨드랑이 아래 옆선길이'는 매우 짧아졌다. 겨드랑이 아래 옆선길이가 짧아지면서 소매는 넓어져 답호의 무와 소매는 겹치는 형태로 보인다. 소매는 두리소매를 잘라 놓은 형태이다. 무의 형태는 사각형 무와 조선후기 단령에서 보이는 무처럼 무의 상단이 뾰족하게 끝이 올라간 형태도 있다.

Ⅳ. 조선시대 전기 답호 형태의 변화

이 장에서는 Ⅲ에서 분석한 것을 기초하여 깃, 소매, 무, 고름 형태의 특징을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로 정리하였다.

1. 깃 형태

일반적으로 조선시대 전기의 곧은 깃을 가진 포류인 답호, 철릭, 직령, 액주름 등의 깃모양 변화는 모두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학자들에 따라 명칭[55]을 달리하기도 하나 대개 깃모양의 변화는 ①이중목판깃 ②이중칼깃 ③칼깃 순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드물게 이중칼깃과 칼깃의 사이에 목판깃에서 머리 부분만 깍은 깃이 있기도 하다. 이는 몰년이 1630년대를 전후한 묘주의 출토복식 가운데 답호와 직령에서 보이는 현상이다.[56] 그러므로 조선시대 전기 답호의 깃 모양은 4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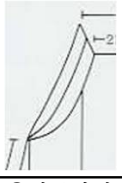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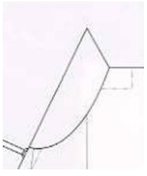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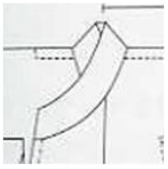
조선시대 전기 답호의 깃모양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15세기에는 완형으로 수습된 답호가 없어서 알수 없지만 이중목판깃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는 여자묘의 보공으로 사용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 답호[57]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16세기 전기 답호의 깃 형태는 이중목판깃과 이중칼깃이다. 16세기 후기 답호의 깃 형태는 이중칼깃과 칼깃이 혼재되어 있다. 17세기 전기 답호의 깃은 칼깃과 목판깃에서 앞머리가 깎인 형태의 깃 모양이 있다.

2. 소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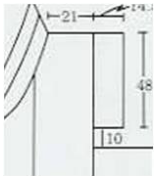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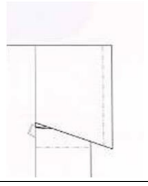
조선시대 전기 답호의 소매 형태〈표 8〉는 3가지가 있다. ①진동과 수구의 치수가 거의 같은 직선형 ②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 ③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넓어지는 '깔대기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15세기 답호의 소매형태는 직선형의 소매이다. 16세기 전반 답호의 소매는 직선형과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 소매가 섞여있다. 16세기 후반~17세기 전기 답호의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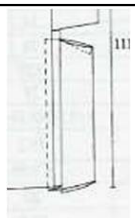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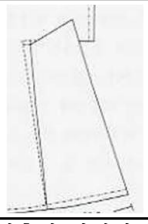
〈표 7〉 조선시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답호의 깃 형태

깃형태				
깃명칭	①이중목판깃	②이중칼깃	③칼깃	④목판깃
출처	고운(1479~1530)묘 *霞川 高雲 출토유물*, p. 107.	정온(1481~1538)묘 *韓國服飾 11*, p. 68.	심수륜(1534~1589)묘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5.	강대호(1541~1624)묘 *韓國服飾 23*, p. 61.
해당 묘 복식	변수(1447~1524) 김흠조(1461~1528), 고운(1479~1530)	송효상(1430~1490 추정) 정온(1481~1538), 정응두(1508~1572) 이언충(1529~1582), 이석명(1513~1583) 정휴복(1529~1604)	이언충(1529~1582) 윤선언(1580~1628) 신여관(1530~1580추정) 심수륜(1534~1589), 조경(1541~1609)	강대호(1541~1624)

〈표 8〉 조선시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답호의 소매 형태

소매형태			
명칭	① 직선형 소매	② 사선형 소매	③ 깔대기형 소매
출처	정온(1481～1538)묘 *韓國服飾 11*, p. 68.	이석명(1513～1583) 묘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87	심수륜(1534～1589) 묘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5.
해당 묘 복식	이계륜(1431～1489) 송효상(1430～1490추정) 고운(1479～1530) 정온(1481～1538) 정응두(1508～1572) 정휴복(1529～1604) 강대호(1541～1624) 윤선언(1580～1628)	변수(1447～1524) 김흠조(1461～1528) 이언충(1529～1582) 이석명(1513～1583)	신여관(1530～1580) 심수륜(1534～1589) 조경(1541～1609)

〈표 9〉 조선시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답호의 무 형태

무형태			
명칭	① 대소안팎 주름무	② 안팎 주름무	③ 조선후기 단령의 무형태
출처	이석명(1513～1583) *이석명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p. 87.	심수륜(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p. 215.	강대호(1541～1624)묘 *韓國服飾 23*, p. 61.
해당 묘 복식	이계륜(1431～1489) 변수(1447～1524) 김흠조(1461～1528) 고운(1479～1530) 정온(1481～1538) 정응두(1508～1572) 신여관(1530～1580) 이언충(1529～1582) 이석명(1513～1583)	송효상(1430～1490추정) 심수륜(1534～1589) 윤선언(1580～1628)	조경(1609) 강대호(1541～1624)

록 좁아지는 사선형 소매와, 이와는 반대로 진동에서 소매로 갈수록 넓어지는 '깔때기형' 소매가 공존한다.

소매형태의 큰 흐름은 시대가 내려갈수록 ①→②→③유형으로 변화하나, 약간의 예외가 있다. 이는 시대가 내려갈수록 포류(袍類)의 소매형태가 넓어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3. 무의 형태

조선 전기 포류 가운데 단령, 답호, 직령과 같이 무가 있어 풍성한 옷은, 시대에 따라 무의 형태가 변화한다. 이들 포류는 깃과 마찬가지로 무의 형태도 일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조선전기 답호의 무 형

태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①'대소안팎 주름무'[58] ②'안팎 주름무' ③'조선후기 단령의 무'이다.

시기별로 나누어 본 답호의 무 유형〈표 9〉은 15세기와 16세기 전후기에는 대체로 ①유형의 무형태이다. 이는 길쪽으로 작은 주름이 들어가있고 무의 상단부는 접혀서 아래로 경사진 형태이다. 이와 같이 생긴 무는 무의 머리를 접어 넣어 경사를 이루었는데, 이른 시기의 답호는 경사가 심하고 나중으로 갈수록 경사가 약해진다. 16세기 후기와 17세기 전기에는 ②유형의 무가 보인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무는 앞뒤의 무 크기가 같고 길쪽으로 주름이 없으며, 무 상단부는 접혀있지만 경사가 없는 사각형의 무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예외에 속하는 답호가 송효상(1430~1490추정) 묘의 답호로 ②유형에 속한다. 17세기 전기에는 ③유형의 무가 등장한다. 이것은 앞길과 뒷길에 달리는 무의 크기와 형태가 차이가 있으며, 무의 상단의 경사지어 뾰족하게 끝이 올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17세기의 단령과 직령 등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무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고름의 형태

옷고름이 붙어있나 떼어져 있냐의 문제는 상장례 풍습에 관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고름이 모두 떼어져 있는 답호는 이계륜, 변수, 정휴복 묘에서 출토된 답호로 고름의 형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름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부착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표 10〉에 의하면 16세기 전기에는 고름 2쌍이 직접 달려있거나, 간접으로 달려 있다. 16세기 후기에는 2쌍의 직접부착고름과 간접부착고름이 달린 것과 1쌍의 직접부착고름과 간접부착고름이 달린 것이 섞여있는 시기이다. 17세기가 되면 2쌍의 고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1쌍의 직접부착과 간접부착고름이 달려있다.

5. 답호의 겨드랑이 아래 옆선 길이

답호의 겨드랑이 아래부터 무가 달린 곳까지의 길이인 옆선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 11〉에 의하면 16세기 전기에는 10~25cm 내외로 겨드랑이 아래 옆선이 길었고, 16세기 후기부터 17세기 전기에는 2.5~4.5cm로 짧아진다. 예외에 속하는 것은 송효상(1430~1490 추정)의 답호로 겨드랑이 옆선의 길이는 4cm로서 이는 16세기 후기 이후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7세기 초기가 몰년인 조경과 강대호 묘에서 출토된 답호의 겨드랑이 옆선은 짧아지면서 무의 형태도 위가 뾰족하게 변화한다.

답호 겨드랑이 옆선의 변화는 철릭 옆선의 변화와 대체로 비슷한 유형을 보이나 답호 겨드랑이 옆선의 길이보다 철릭의 옆선 길이가 더 길다. 이는 철릭 위에 답호를 입기 때문에 답호의 옆선이 철릭보다 더 짧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답호의 전후 길이

답호의 앞뒤길이의 차이도 변화가 있었다. 15세기에는 전단후장형이고, 16세기 전기에는 전단후장형과 전후동일형 그리고 전장후단형이 함께 출토되었다. 16세기 후기부터 17세기 전기에는 전단후장형에서 전후동일형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17세기 전기의 윤선언 묘에서 수습된 답호는 예외로 4점은 전단후장형이고, 1점은 전후동일형이다.

7. 답호의 구성

15세기의 답호는 홑과 솜답호가 수습되었으나, 이 가운데 송효상의 묘는 몰년이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16세기의 답호는 홑과 겹이 섞여있다. 17세기의 답호는 윤선언묘에서 출토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홑이다. 솜답호는 15세기로 추정되는 송효상의 묘와 16세기 전기의 김흠조 묘에서 수습된 답호 2점이다. 이는 분석에 사용한 53점의 답호에서 4%에 해당되는 매우 적은 점수이다.

8. 답호의 직물

각 보고서와 논문에서 밝혀놓은 직물 명칭으로 분석한 답호 53점에 사용된 직물은 〈표 10〉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5세기의 답호는 주와 사면교직이 사용되었

〈표 10〉 조선시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답호의 특징

특징 \ 세기			15세기		16세기 전기				16세기 후기					17세기			
		이름(점수)	이계륜(1)	송효상(2)	변수(7)	김흠조(11)	고운(3)	정온(2)	정응두(6)	신여관(2)	이언충(6)	이석명(1)	심수륜(1)	정휴복(1)	조경(2)	강대호(3)	윤선언(5)
길이	전단후장형		1	2				2	6	2	6	1					4
	전후동일형				7	11	2						1	1	2	3	1
	전장후단형						1										
겉깃	이중목판				7	11	3		6		6						
	이중칼깃			2				2						1			1
	칼깃									2		1	1		2		4
	깍은목판															3	
	미상		1														
안깃	완전내어달림		1		7	11	3	2	3	2	6	1		1	2	2	2
	1/2내어달림			2					3								3
	1/3내어달림															1	
	1/5내어달림												1				
소매 모양	직선형		1	2			3	2	6					1		3	1
	사선형				7	11					6	1					1
	깔때기형									2			1		2		3
고름 형태	2쌍	직접			7 (흔적)	4	2	2 (흔적)	1		4						
		간접				7	1		3		2						
	1쌍	직접		1						1		1			2		3
		간접		1						1			1			2	2
	미상		1						2					1		1	
무 모양	①유형		1		7	11	3	2	6	2	6	1					
	②유형			2									1	1			5
	③유형														2	3	
구성	홑		1	1	3	7	2	1	5	1	2		1	1	2	3	3
	겹				4	3	1	1	1	1	4[59]	1					2
	솜			1		1											
직물	주	주	1	1	1		1	1	1	2	3	1		1	1		1
		면주			1	2											
		생주							3								
		삼팔주									1						
	견	견			2	1											
	초	광초				1			1							1	
		화문초														1	
	사	문사			1	1											1
		공사									1						
	릉	릉															1
		문릉									1				1		
	단	무문단			2												
		운문단							1							1	2
	면	면					1	1					1				
	저	모시					1										
	마	마포				3											
	교직	사면		1		2											
		저면				1											

다. 16세기 전기에는 주, 면주, 견, 광초, 문사, 무문단, 면, 모시, 마포, 사면교직, 저면교직이 사용되었다. 16세기 후기의 답호에는 주, 생주, 삼팔주, 광초, 공사, 문릉, 운문단, 면이 사용되었다. 17세기 전기의 답호에는 주, 광초, 화문초, 문사, 릉, 문릉, 운문단이 사용되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직물은 주(紬)종류로 22점으로 41.5%에 달한다. 단류는 6점으로 11.3%를 차지하고, 교직물(交織物)은 16세기 전기의 답호에서만 수습되었다.

〈표 11〉 조선시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답호의 치수

구분(cm) \ 묘주(점수)		15세기		16세기								17세기				
		이계륜 (1)	송효상 (2)	변수 (7)	김흠조 (11)	고운 (3)	정온 (2)	정응두 (6/9)[60]	신여관 (2)	이언충 (6)	이석명 (1)	심수륜 (1)	정휴복 (1)	조경 (2)	강대호 (3)	윤선언 (5)
길이	앞	122	117-126	133.5-141	142-152	124-134	134-135	114-127	124-126	119.5-126	111	111.2	128	130-133	131-134	113-119
	뒤	125	127-134	앞과 동일	앞과 동일	124-130	137-138	126-136	앞과 동일	127-131	115	앞과 동일	앞과 동일	앞과 동일	앞과 동일	118-124.5
	길이차이	3	8-10	없음	없음	4	2-4	5-13	없음	3.5-9	4	없음	없음	없음	없음	0-7.5
화장			55-59	41.5-48	46-60.5	45-46	46-48.5	54-62	58-65.5	48-59	56	62.5	?	77-82	60-73.5	57-64
진동			38-45	35.7-41.5	40-49.7	41-44	48-50	44-46.5	?	37.5-42	40.5	32.5	41?	35-39	33-33.5	40-44
수구			38-45	32.2-39	40-45	41-44	48-50	44-46.5	42-49	37-39.5	38	43.5	41	38-41	33-34.5	39-47
깃길이			60-63 (겉깃)	127.2-133.8	128-141	128.5-142	139～146	63～65 (건깃)	139～142	121.5-134.5	128	99.5	?	112-113	93-99.5	120.5-130
깃나비			14	10.1-15.3	12-14	6-6.5	14～15	13～15	13.5～15	13-14.5	16	13	?	12-13	11.5-12	12-16
고대			20	18-20	18-21	18.5-19	19	20～21	22	18.5-22	20.5	19	21	19	18.5-19.5	18-21
겨드랑이 아래 길이		9.5	4	17.5-24.9	19-24.5	17.5-21	10-21	5～7	3～5	6.5-10.5	4.5	2.5	?	2.5-4	2-4.5	3-7

Ⅴ. 결론

'답호'는 고려시대 후기에 원나라에서 들어온 옷으로 『노걸대』에는 '搭胡'로 표기되어 있고 '더그레'로 언해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답호 실물은 문수사 불복장품과 해인사 불복장품이 있다. 답호의 형태는 곧은 깃에 반소매가 있고 무가 달려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답호에 관한 것으로 문헌과 유물을 통해 답호의 색상과 소재 그리고 형태와 구성을 알아보았다. 문헌연구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17세기까지 답호의 용도와 기록된 횟수 및 시대, 색상, 옷감과 구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남자분묘에서 수습된 출토복식을 통하여 답호의 특징과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출토복식의 답호는 곧은 깃에 반수의(半袖衣)이며 무가 달린 형태의 답호가 수습되는 17세기 초기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왕조실록』에서 보이는 답호는 세종대부터 광해군대까지 기록되었고, 약 160년이 흐른 후 영조 이후 다시 등장하여 순종대까지 기록되어 있다. 답호는 세종대에는 褡複, 단종~성종 초에는 塔胡, 성종 5년 이후 연산군 5년까지는 搭胡, 연산군 5~11년에는 塔胡, 중종 대에는 搭胡, 선조~광해군 대에는 褡褦, 褡護로 표기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답호의 명칭이 기록되었다.

2.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답호의 용도는 단종~성종 대에는 외교와 관련된 경우가 제일 많다. 중국의 명나라에서 대부분 중국 명나라와 관련된 사신이나, 사은사나 성절사 등 중국과의 외교를 담당한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복식 일습 중 답호가 사용되었고, 야인(野人)들에게도 하사하였다. 명나라에 성절(聖節) 하례품(賀禮品)으로 올리는 물목에도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한 조정의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옷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산군 이후 광해군대에는 주로 궁중행사나 사치금제 등으로 언급되었다.

3. 『조선왕조실록』광해군대까지 기록된 답호의 색상은 15종이 있고, 그 가운데 녹색 계통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답호의 옷감은 紬, 紗, 綃와 같은 얇은 직물이 많이 사용되었고, 겹과 솜[襦] 답호의 기록이 있다.

4.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반수의(半袖衣)에 무가 달린 답호가 출토된 예는 15세기의 답호가 3점, 16세기 전기가 23점, 16세기 후기 답호가 16점, 그리고 17세기 전기가 11점으로 총 15건 53점이며 답호의 구성은 홑 33점, 겹 18점, 솜 2점이다.

5. 답호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다.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답호의 깃은 16세기에는 이중목판깃에서 이중칼깃, 칼깃으로 변했으며, 17세기 전기에는 깍은 목판깃과 같은 형태도 등장한다. 답호의 무 형태는 15세기와 16세기에는 무의 상단이 아래로 내려가는 사선형에서 직선형으로 변화하며, 17세기 전기에는 무의 상단이 위로 올라가는 사선형으로 변화한다. 소매의 형태는 15세기에는 직선형에서 16세기와 17세기 전기에는 직선형과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선형 소매가 섞여있으며, 시대가 흐를수록 깔대기형으로 변화한다. 답호의 겨드랑이 아래 옆선 길이는 16세기 전기에는 10~25cm로 길었으나 16세기 후기부터 17세기 전기에는 2.5~4.5cm로 짧아진다. 옷고름은 16세기 전기에는 2쌍의 고름이 달려있었으나, 17세기에는 1쌍의 고름으로 변화된다. 답호의 앞뒤 길이 차이도 초기에는 전단후장형이나 후기로 갈수록 앞뒤길이 차이가 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 답호의 직물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주(紬) 종류로서 수습된 유물의 41.5%에 달한다. 답호의 형태 변화에는 예외에 속하는 것이 있으니, 송효상(1430~1490 추정), 윤선언(1580~1628)의 묘에서 출토된 답호가 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된 답호와 조선시대 출토복식에서 볼 수 있는 답호는 17세기 초기까지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답호가 기록된 시기는 광해군의 재위 기간인 1608~1623년까지이며, 출토복식에서는 곧은 깃에 무가 달려있는 반수의(半袖衣)형태의 답호는 강대호(1541~1624) 윤선언(1580~1628)의 몰년 이후인 17세기 전기이후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17세기 전기 이후부터 단령이 직령과 함

께 겹옷으로 변하면서 단령의 받침옷인 답호의 기능이 단령의 안감[속옷]인 직령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답호는 사라진다. 출토복식에서는 이응해(1547~1626), 김확(1572~1633), 신경유(1581~1633) 묘에서부터 겹단령이 출토되고 답호는 출토되지 않는 것을 보아 이 시기부터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의 세종, 단종, 세조, 성종대의 겹원령(袂圓領)의 기록으로 보아 조선전기에 겹단령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조선전기의 출토복식의 단령은 홑단령만 수습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복식 고증이나 문화 콘텐츠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단령, 답호, 철릭 일습의 색상과 직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國朝五禮儀* 士庶人喪 "黑圓領, 褡複, 帖裏"의 기록과 *조선왕조실록*의 외국사신과 신하에게 답호를 하사할 때 圓領과 褡複 帖裏 등의 일습을 하사한 기록은 〈표 1〉에 인용된 일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홍나영 (2008).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 남자 편복포의 시대구분. *服飾, 58*(5), pp. 119-133.
3) 이봉숙 (1984). *답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이주영 (1993). *朝鮮時代 無袖衣에 關한 硏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권오선 (2002). *조선후기 동다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변지연 (2006). *더그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조선시대 후기의 답호에 관한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변지연(2006)의 *더그레에 관한 연구*에 자세히 나와있다.
8) 서정원 (2002). *『老乞大』刊本을 통해본 14~18세기의 복식관련 용어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41.
9) 정광 (2004). *原本 노걸대*. 서울: 김영사, p. 359.
10)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至心歸命禮*..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 p. 13.
11) *위의 책*, pp. 73-83.
12) *세종실록 권143*. 五禮 凶禮儀式 襲. "褡複一"
13) *세종실록 권103*, 세종26년(1444) 3월26일. "靑暗花褡服" "靑暗花褡複" "靑素褡複"
14) *노산군일기 권2*, 단종 즉위년(1452) 8월26일, 윤9월17일, 10월4일, 10월13일, *노산군 일기 권14*, 단종 3년(1455) 4월28일
15) *노산군 일기 권4*, 단종 즉위년(1452) 10월 5일, *노산군 일기 권11*, 단종 2년(1454) 5월6일, 5월18일
16) *세조실록 권15*, 세조 5년(1459) 3월15일, *세조실록 권19*, 세조 6년(1460) 3월2일, 3월9일, *세조실록 권33*, 세조 10년(1464) 5월18일,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1467) 9월14일, 9월27일, 10월2일, *세조실록 권46*, 세조 14년(1468) 4월9일.
17) *세조실록 권16*, 세조 5년(1459) 4월9일, 4월16일.
18)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1460) 4월20일
19) *세조실록 권43*, 세조 13년(1467) 10월22일.
20) *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1469) 12월2일, 12월7일. *성종실록 권5*, 성종 1년(1470) 5월1일 외 수회가 기록되어 있다.
21) *성종실록 권152*, 성종 14년(1483) 3월12일, 7월2일, 10월19일. *성종실록 권186*, 성종 16년(1485) 12월28일. *성종실록 권187*, 성종 17년(1486) 1월9일.
22) *성종실록 권115*, 성종 11년(1480) 3월20일.
23) *성종실록 권210*, 성종 18년(1487) 12월14일.
24) *성종실록 권230*, 성종 20년(1489) 7월7일.
25) *연산군일기 권31*, 연산군 4년(1498) 10월26일.
26) *연산군일기 권2*, 연산군 1년(1495) 1월6일.
27) *연산군일기 권46*, 연산군 8년(1502) 10월18일.
28) *연산군일기 권49*, 9년(1503) 5월 20일.
29) *연산군일기 권5*, 연산군11년(1505) 4월10일.
30) *연산군일기 권58*,연산군 11년(1505) 6월25일.
31) *중종실록 권36*, 중종 14년(1519) 6월13일.
32) *중종실록 권45*, 중종 17년(1522) 8월12일.
33) *선조실록 권160*, 선조 36년(1603) 3월18일.
34) *선조실록 권200*, 선조 39년(1606) 6월6일.
35) *광해군일기 권52*, 광해군 4년(1612) 4월21일, 4월24일.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定陵博物館, 北京市文物工作附 (1990). *定陵 下*. 北京: 文物出版社, p. 32.
37)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편) (2006). *다시 태어난 우리옷 환생*.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p. 110.
38) 문화재청(편)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p. 136-141.
39) 박성실 (1993).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韓國服飾, 11*, pp. 57-89.
40) 대전광역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편) (2006).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pp. 67-149, 대전: 대전광역시, pp. 232-235.
41) 최은수 (2003). 변수(1447~1524) 묘 출토복식 고찰. *생활문물연구 11*, pp. 89-139.
42) 영주시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영주: 영주시, pp. 229-326.
43) 광주민속박물관(편) (2000). *霞川 高雲 出土遺物*. 광주: 광주민속박물관, pp. 35-118.
44) 박성실 (1998).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韓國服飾 16*, pp. 31-39.
45) 박성실, 고부자 (1991),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

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韓國服飾 9*, pp. 45-83. pp. 135-157.

46) 박성실(1992). *앞의 책*, pp. 159-228.

47)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韓國服飾 17*, pp. 41-122.

48)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州李氏 大司憲 彦忠(1524～1528)墓 복식 고찰. *韓國服飾 20*, pp. 87-154.

49)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실 (2000),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大學校 博物館.

50) 경기도박물관(편) (2004). *심수륜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110-175.

51) 박성실, 고부자 (1989).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에 관한 小考. *韓國服飾 7*, pp. 123-154.

52) 서울역사박물관(편) (2003). *趙儆墓出土遺衣*.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p. 38-126.

53)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진주강씨(대호, 1541～1624) 유물. *韓國服飾 23*, pp. 39-180.

54) 고부자 (2008).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硏究, *韓國服飾 27*, pp. 33-84.

55) 동일한 형태의 깃모양을 이은주는 '예각반목판깃'이라고 하였고, 금종숙은 '이중모난칼깃'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중목판깃'이라고 하겠다.

56) 답호는 강대호의 답호의 깃에서 이러한 모양이 있고, 김확(1633)의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된 직령의 깃이 깍은 당코깃이며, 의원군(1722)의 단령의 안감으로 사용된 직령, 그리고 중치막 등에서도 당코깃이 있다. 이외도 파계사의 영조(英祖) 도포의 깃도 당코깃이다.

57) 인천광역시립박물관(편)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p. 166.

58) 안동대학교박물관(편)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p. 217.

59) 1점은 한지가 심감으로 사용되었다.:

60) 수습은 9점이었나, 실측도와 치수는 6점만 보고됨.